

광주·전남 문화예술 지출 전국 '꿀찌' 수준

지난해 신용카드 지출 분석 보니

공연 관람·연주 등 활동에
광주 206억·전남 135억 씩
여가 지출도 전국 최하위
경제·문화 격차 해소 시급

지난해 지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은 광주 206억원, 전남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액 비중이 있어 서울(41.6%), 부산(4.3%), 대구(3.3%), 인천(3%), 대전(2.6%)로 광주(1.9%)가 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남도 전체 비중이 1.2%로 조사 대상 시도 가운데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꼴찌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균형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문화광주'에 향남도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화 인프라 시설의 부족, 공연·전시 관람 기회 부족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활동이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발표한 '2017년 국민여가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은 지난 한해 문화활동을 하는데 206억원을 썼으며 전남은 135억원을 소비했다.

자료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국내 사용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가 관련 카드 지출액을 분석 부문별 지출 규모를 파악 정책 수립, 관련 산업 파급효과 추정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다.

지난해 내국인의 문화예술활동 부문 지



출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전년(약 1조 80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공연 관람, 사진촬영, 악기연주 등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젊은 남성의 문화예술활동 부문 지출액이 약 5700억

(51.8%)으로 여성의 지출액 5300억원(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5일제 정착과 '저녁이 있는 삶' 등이 점차 일상에서 확대되는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33.3%), 30대

(30.9%), 50대(17.2%), 20대(11.7%) 순이었다.

또한 광주시민들은 지난 한해 여가를 즐기는데 3조7908억원을 지출했으며 전남은 이보다 적은 3조4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여가 지출에서 각각 1.6%와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가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01조 2591억원(43.1%), 경기 59조 2207억원(25.2%)이었다.

보고서는 여가의 범위를 '취미·오락'(종합쇼핑, 외식, 미용, 교육훈련, 유흥 등), '여행'(교통, 숙박, 관광쇼핑, 체험),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구매, 골프, 헬스, 레저스포츠, 자전거 등), '문화예술활동'(공연관람, 사진 촬영, 악기연주, 미술공예 참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여가 지출액 비중이 있어서도 지역의 지출액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서울(43.1%), 부산(4.5%), 대구(2.8%), 인천(3.3%), 대전(2.1%) 순으로 광주가 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 위축과 높은 실업률, 취약한 생산 기반으로 소득 증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가 부문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취미·오락'이었다. 지난 한해 취미오락에 광주는 3조4658억원, 전남은 2조9855억원을 썼다.

반면 여행 부문에서는 각각 514억원, 1277억원을 지출해 상대적으로 여행 부문에서 가장 적게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여행 부문에서 세종과 울산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정선휘, 이이남, 김숙빈, 김진화, 신창운, 박상하, 이정록, 정광희, 윤세영...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지역의 청년작가들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에서부터 근래 국제무대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사진 작가까지 그 면면이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각 권역별로 45세 미만의 유망청년작가(광주·전남, 대전·충청, 부산·경남, 서울·경기 등)를 대상으로 하는 하정웅청년작가상의 역대 수상자라는 사실이다.

하정웅작가상은 국내 미술계에서 독

특히 하정웅 청년작가상은 후원자로서 그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999년 2차 기증 당시 하씨는 (감사의 표시로) 보상의 뜻을 전해온 광주시에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국내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전을 개최해달라"고 제안했다. 그의 뜻을 기려 시립미술관은 국적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작가 5-6명을 선정한다. 올해까지 배출된 역대 수상자 99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이 76명인 것도 그 때문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2일 하정웅미술관(옛 상록전시관)에선 지역

하이팅! '하정웅 키즈'(Kids)

보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부산시립미술관의 청년작가상이 현재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것과 달리 한해도 거르지 않고 청년작가들의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정웅작가상이 탄생한 데에는 영암 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80·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씨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하씨는 1993년 212점을 시작으로 20여 년에 걸쳐 평생 모은 미술품 2536점(하정웅 컬렉션)을 광주시에 쾌척한 메세나의 표상이다. 하정웅 컬렉션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상', 살바도르 달리의 '초봄의 나날들', 앤디 워홀의 '모택동' 등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 하씨의 기증으로 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작품(4789점)을 소장, 다른 미술관의

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술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하정웅청년작가전'(8월2일~9월30일)의 개막식이 열렸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하씨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관한 하정웅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5명의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한 하씨는 축사를 통해 이들이 한국 미술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사실 하정웅 컬렉션과 역대 수상자들인 '하정웅 키즈'(Kids)를 문화광주의 자산으로 키우는 건 지역의 몫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일 거다. 혹시 폭풍 찌는 짐통 더위를 잊고 싶은 색다른 피서를 찾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으로 나를 이룰 떠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남도-몽골문학교류' 행사 성황리 마무리



'몽골청소년문학캠프' 장면.

남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2018한국몽골문학교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최근 5박 6일 일정으로 몽골 현지를 방문해 몽골작가협회(회장 사를 달라이)와 함께 '몽골문학, 문학의 원형찾기'라는 주제로 문학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양국 문인단체 간 체결한 상호협력각서(MOU)에 기반해 진행됐으며 한국에서는 나중영, 이지담, 조진태, 유종, 주영국, 고영서, 박관서, 이동순, 김호균, 강희진 시인과 채희운 작가가 참여했다. 몽골에서는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우리앙카이 시인을 비롯해 사를 달라이 몽골작가협회 회장 등 15명의

문인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학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교류인 만큼 양국 문인들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무엇보다 양국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교차 번역해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방문단은 한국 몽골 시화전시회, 양국문인교류대회, 몽골청소년문학캠프 등을 진행했으며 남도문학의 새 지향점을 찾아보는 취지에 맞춰 문화유적 방문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나중영 시인은 "몽골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불의에 대한 저항, 민초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인협회, 9월 개강 시문학 강좌 회원 모집

광주시인협회(회장 김석문)가 지역문단의 저변 확대와 창작 활성화를 위해 2학기 시문학 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오는 9월 3일 개강하는 시문학 강좌는 12월까지 광주시인협회 사무실(동구 문화전당로 17)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화요일 제외 오후 2시) 펼쳐지며 강사로 강만, 노창수, 이길욱, 조연화, 김석문 시인이 나선다. 월요일에는 강만 시인이 초보 시인을 위

한 시창작 핵심 지도를, 화요일에는 노창수 시인이 기성 시인을 위한 창작 강의를 할 예정이다. 수요일은 이길욱 시인이 시문학도를 위한 시창작 기초 과정을 강의한다.

시문학 지도도 마련돼 있다. 금요일은 조연화 씨가 효과적인 시낭송에 대해 지도를 한다. 토요일은 김석문 시인이 작품집 준비 발간반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문의 062-233-88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